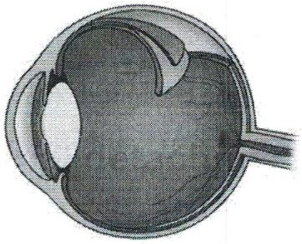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s & breaks)

정의

망막박리는 매년 1만 명에 한 명 꼴로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망막박리는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안과 질환입니다.

망막박리란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부터 떨어져 들뜨게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망막이 들뜨게 되면 망막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시세포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구적인 망막위축이 발생하여 실명하거나 안구가 위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망막유리체 수술이 필요합니다.



【망막의 구조】

증상

- 날파리증(비문증) *100~200개의 검은 점이 떠다닐때
- 광시증 *번쩍번쩍 거리는 불빛이 보이는 현상
- 시야장애 *위, 아래, 좌우에서부터 시야가 커튼을 친 것 같이 가려 보이는 증상
-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

경우에 따라서는는 중심 망막(황반부위)은 잘 유착되어 있고, 주변부부터 서서히 망막박리가 지속될 경우, 증상을 못 느끼고 우연히 안과 검사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